

1960년대 미국의 새로운 세대 형성과 학생 운동

안 효 상

(서울대 서양사학과)

1. 들어가는 글

어떤 정치적, 이론적 관점에서 보든 1960년대 혹은 1968년이 커다란 사회적 분출과 격변의 시기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프라하에서 파리까지, 런던에서 도쿄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베이징까지 학생 반란을 위시한 체제 저항의 움직임이 급작스럽게 분출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68년을 “전혀 혁명이 아니었다”고 하는 맑스주의 역사가 홉스봄조차 1968년을 “1917년 이후 혁명가들이 꿈꾸었던 동시적인 세계 대격변에 해당하는...시기”로 인정하고 있으며, 세계 체제론자인 윌러스틴은 1968년을 1848년 혁명과 나란히 20세기의 유일한 세계 혁명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러한 대격변 혹은 세계 혁명의 주인공이 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이었다는 점도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예컨대 홉스봄은

주 제 어: 학생 운동, 세대,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 버클리자유언론운동
Student movement, Generation, SNCC, SDS, Berkeley Free Speech Movement

그러한 대격변의 주인공이 “젊은 남녀들 및 그들의 선생님들”이었으며, “문화에서나 정치에서나 새로운 요인”이었다고 한다(홉스봄 1999, 410, 413; 윌러스턴 1996).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학생 반란은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1848년 혁명에서 학생들은 바리케이드 위에 있었으며, 1918년 아르헨티나 학생들은 대학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다. 1945년 이후에 벌어진 중국 혁명과 쿠바 혁명에서도 학생들의 역할은 눈에 띄는 것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에 관해 볼 때 학생 반란이 보인 두드러진 특징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앞서 말했듯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미국,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의회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가장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다.

학생 반란이 의회 민주주의 나라들, 특히 미국에서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그 이전까지 학생들은 주로 기성 질서의 일부이자 옹호자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것이 장기 호황의 한복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충격을 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기까지 했다. 이런 이유로 학생 반란과 학생 운동을 정상적인 정치 질서나 청원 절차에서 벗어난 일종의 “일탈”로 보고 그 원인을 대학이라는 공간의 이상적, 낭만적 성격, 사회적 책임 의식이 약한 학생들의 독특한 성격에서 찾고 이를 일반적인 세대 갈등이라는 도식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Lipset 1971; Feuer 1969).

하지만 주로 초기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보이는 이런 해석은 1960년대 학생 반란의 뿌리를 드러낼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정상과 일탈”, “세대 갈등”을 추상적인 잣대로 두고 학생 반란을 보면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사건으로 해석하게 되고 따라서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가지는 고유성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1960년대는 서양의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국면이었다. 우선 앞서도 말했듯이 유례없는 경제 호황이 있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십 년 동안 미국에서 임금은 1.5배 상승했고, 실업률은 실질적으로 0 퍼센트나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더해 베이비붐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 및 청년 세대의 비중 증대가 있었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의 기술 진보는 숙련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숫자를 늘렸고, 이는 다시 고등 교육의 급격한 팽창을 가져왔

다. 따라서 이러한 전후 세대 혹은 1960년대 세대가 여러 가지 점에서 독특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¹⁾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의 몇몇 미국사 연구자들도 미국의 신좌파 혹은 학생 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황보종우 1997; 이주영 1998; 정경희 2001). 신좌파 운동의 대표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는 SDS(민주주의를 위한 학생들)의 노선과 활동을 이해함으로써 그 성격을 파악하려는 이들 연구는 행위자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냄으로써 그 실체에 접근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신좌파를 주로 백인 학생 급진주의 운동으로 한정할 뿐만 아니라 초기 운동과 후기 운동이 커다란 단절을 보인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몇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우선 신좌파 운동을 이념적인 수준에서 볼 때는 좌파의 무능과 배신에 대한 대립물로서 출현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 운동의 맥락에서 볼 때는 (특히 의회 민주주의 나라에서) 해당 사회가 표방한 가치의 현실적 배반에 대한 대응이었다. 미국의 경우 이는 미국적 가치에 반하는 인종 차별과 빈곤이었다. 따라서 백인 학생 급진주의가 고유한 지향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운동만을 신좌파로 지목할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다.²⁾ 다음으

1) 세대 연구의 선구자인 만하임에 따르면, 세대는 수많은 동시 출생 집단, 즉 세대 위치들 중에서 특별한 사회역사적 사건에 대한 공동 경험을 통해 세대 연관을 형성한 집단만을 말한다.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 고유한 사건을 통해 ‘우리라는 정서’를 공유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하지만 만하임의 세대 개념은 어떤 세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질문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세대의 특징을 드러내고 서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만하임의 세대 개념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그러한 세대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가를 주로 살펴볼 것이다. 만하임의 세대 개념은 Karl Mannheim(1952)를 보라. 만하임의 세대 개념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세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추가적인 개념과 이론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제기한 국내 문헌으로는 박재홍(2001)을 보라. .

2) 특히 이런 관점은 1960년대 운동과 1968년 혁명이 세계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애써 무시하고 백인 학생 급진주의 운동을 “선진국형 운동”으로, 흑인 운동 등을 “후진국형 운동”으로 유형화하여, 여러 운동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이주영, 1999). 1960년대 운동과 1968년 혁명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으로는 앞서 든 윌러

로 초기 운동과 후기 운동을 단순히 이념의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구분하는 것은 사회 운동의 동학, 즉 어떤 맥락 속에서 운동이 변형되어 가는지에 대해 간과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신좌파 운동의 이념적 특성이 절충주의라 할 때 체계적인 성격을 가진 이념적 틀로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그 운동 고유의 성격을 흐릴 가능성이 크다.

이 글에서는 이들 세대의 독특한 역사적 환경을 염두에 두면서 1960년대 초반 미국의 학생 운동의 형성을, 그들이 구성했던 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할 때 초점은 1960년대에 백인 학생 운동을 주도한 SDS(민주주의를 위한 학생들)와 흑인 민권 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SNCC(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가 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참여 민주주의”로 표현된 민주주의의 확대, “일상의 혁명”으로 요약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새로운 가치 추구가 이들 운동의 초기 국면에서 잘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앞서 언급한 몇몇 국내 연구처럼 초기 학생 운동을 특권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전혀 아니다. 도리어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운동의 급진화의 동학이다. 다시 말해 인종 차별 철폐라든가 이성, 자유, 사랑에 기초한 인간주의, 민주주의 등 승인된 미국적 가치의 옹호가 어떻게 급진적 지향과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한다. 또한 부분적인 운동들이 어떻게 상호영향을 주면서 더 커다란 운동(the Movement)으로 발전했는지도 초기 국면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2. 대학

전후의 대학은 이전의 대학과 여러 가지 점에서 달랐다. 전후 자본주의의 호황을 뒷받침한 것 가운데 하나는 과학의 발전 및 직접적 생산력으로서의 전환이었

스틴의 책 이외에도 조지 카치아피카스(1999), Fink, P. Gassert and D. Junker(1998) 등이 있다.

다. 다시 말해 이전과 달리 과학은 생산의 중심이 되었고, 이에 따라 실용적 기술과 과학의 관계가 바뀌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바뀌면서 기업체 부설 연구소가 확대되었고, 대학 또한 생산의 실험실이 되었다. 이미 20세기 초부터 일부 기업들은 연구자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연구 개발(R&D)하는 길에 나섰으며, 정부 관계를 통해 대학을 과학 지식 생산을 위한 실험실로서 생산 과정에 긴밀히 연결시켰던 것이다(Aptheker 1972).

대학을 실험실로 이용한 것은 기업만이 아니었다. 정부는 제2차 세계 대전 속에서 급성장하였고, 냉전 속에서 더욱 위세가 커진 방위 관련 연구 개발을 주도하여, 국방부 산하 연구소만이 아니라 대학 연구소를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개발에 대한 정부 지출이 확대되고 고등 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1950년에 20억 5천만 달러이던 고등 교육 관련 지출이 1968년에는 170억 2천만 달러까지 늘어났으며, 연구 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도 1940년의 5억 달러에서 1967년의 180억 달러로 늘어나게 되었다(Anderson 1995: 95; Aptheker 1972: 101-102).

전후의 대학은 또한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 등 지식 노동자를 훈련하는 장소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의 조직적 업무를 담당할 정부 피고용인과 기업체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대학의 몫이었다. 정부 부분의 경우 1960-68년 사이에 매년 4.5%의 비율로 고용이 증가했으며, 1950-65년에 화이트칼라는 70%의 고용 증가를 보였다(스미스 1987: 134-135).

이런 대학의 변화는 양적 팽창을 수반하였다. 1930년대 미국의 대학생 수가 120만 명 이하였던 것이 1960년에는 300만에 달했고, 1965년에는 500만, 1970년에는 800만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숫자가 늘기도 했지만, 기존 대학의 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15,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없었지만 1970년이 되면 재학생 수가 15,000명 이상인 학교가 50개가 넘었으며, 3만 명 이상인 대학도 8개나 되었다(Anderson 1995: 95-96).

대학이 질적, 양적으로 변화하면서 대학생의 출신 계급도 함께 바뀌게 되었

다. 20세기 초의 대학이 대체로 보아 미래의 국가 권력의 운영자들로 채워져 있었던 것에 비해 1950년대 이후의 대학은 점차 노동자 계급의 자녀들을 더 많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1966년 공립 교육 기관에 다니는 캘리포니아 주 대학생의 37%는 부모의 연간 소득이 8천 달러 미만이 집안 출신이었다(Aptheker 1972: 34).

이렇게 대학 자체는 연구 개발 기관으로서 생산 과정에 긴밀히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진 산업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 노동자를 양성하는 대규모 기관이 되어, 캘리포니아 대학 총장인 클라크 커가 적절히 명명했듯이 “대규모 종합 대학”(Multiversity)으로 변모했다(Kerr, 1963). 하지만 관료제에 의해 운영되는 “지식 공장”은 “자아를 증진하고, 존재의 의미를 숙고하는” 대학을 그리던 학생들의 의식과 충돌한다.³⁾

그렇다면 이런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과 가치는 어떤 것이었는가? 이는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었는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전후의 경제 변형은 베이비 붐 현상을 수반하였다. 전후의 높은 출생률은 1946년부터 1964년까지 지속되어 미국사에서 가장 다수 세대인 베이비 붐 세대를 낳았다. 베이비 붐 세대 전체는 7천만 명에 달했는데, 이 중에서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과 제2차 대전 동안 태어나 60년대 초 활동가들의 “첫 번째 물결”이 된 선배 집단을 포함하여 “60년대 세대”라고 하며, 그 숫자는 대략 4천5백만에 이른다(Anderson 1995: 89-90).

이들의 의식과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가운데 하나는 당연하게도 전후의 경제 변형과 미국의 우월적 위치였다. 이들은 대공황의 쓰라림을 겪은 부모 세대와 달리 경제적 풍요 속에서 그 이전의 어느 세대도 누리지 못했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가진 정치적, 도덕적 가치의 기본이

3) 1964년 버클리 자유 언론 운동이 벌어졌을 때 이 학교 신입생이던 마고 아들러의 회상 (Margo Adler, “The Fress Speech Movement,” *Heretic's Heart: A Journey through Spirit and Revolution*, 1977 in <http://www.fsm-a.org/stacks>).

부모 세대와 달랐던 것은 아니었다. 다른 점은 경제적 풍요 속에서 정의, 평화, 평등, 자유 등의 가치를 직접 실천하려는 낙관적인 행동의 의지였다(Gitlin 1987: 12-17).

하지만 60년대 세대는 경제적 풍요에 따른 낙관적인 전망만이 아니라 공포라는 정서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냉전과 핵폭탄의 존재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경제적 풍요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정서를 가지게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는 인류 절멸의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을 “좋은 전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히로미사와 나카사키에 떨어뜨린 원자탄이 전쟁을 끝내는 데 기여했다고 믿는 부모 세대와 달리 60년대 세대에게 핵폭탄은 끝 모를 위협이었다(Gitlin 1987: 22-24).

경제적 풍요와 그로 인한 낙관적인 정서, 하지만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인류 절멸의 공포 사이의 긴장이 낳은 것이 60년대 세대의 행동주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정치적 가치, 즉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를 즉각 이룰 수 있는 때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핵폭탄을 비롯한 그 어떤 위협도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기 세대의 목소리, 양심, 자극제”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Gitlin 1987: 26).

하지만 이들이 들어온 대학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 생산 과정에 깊숙이 편입된 대학에서 정부 및 기업 후원의 연구 개발을 주요한 일로 하고 있던 교수들은 학부생들에 대한 교육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대학 당국도 교육보다는 정부 보조금, 연구 기금, 기부금 등을 다른 대학보다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등록하기 위해서 있는 학생들의 긴 줄과 “대형 강의”였다. 주립 대학의 경우 4,5백 명이 듣는 대형 강의를 일반적일 정도였다(Anderson 1995: 96-97).

학생 수의 증가에 대해 대학 당국은 강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텔레비전과 컴퓨터라는 기술적 해결책으로 대응하였다. 강의를 알리는 벨이 울리면 대형 강의실에 있는 여러 대의 텔레비전이 켜지고 교수가 등장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캘리포니아 대학 신문인 『데일리 캘리포니아』는 신입생을 환영하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풍자적으로 표현했다. “줄, 관료제, 군중 속에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신입생들이 배워야 할 것이 많은데, 첫 번째 것은 각자의 IBM 카드를 접거나, 구기거나,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⁴⁾

한편 학생들이 느끼고 있던 또 다른 불만은 학교 당국이나 사회가 자신들을 취급하는 태도였다. 대학 당국은 학부모를 대신하여(in loco parentis) 학생들의 보호자 노릇을 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대학의 삶에 대해 발언할 수 없었고, 어떤 결정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 이에 더해 “유예된 시민”으로서 무수한 규제를 받아야 했다. 학내 정치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등록금, 강좌, 커리큘럼에 더해 기숙사 배정, 학내 스포츠까지 학교 당국이 정해 준 것을 그저 따라야 했다. 또한 학칙은 음주, 흡연, 약물, 도박, 섹스, 여학생의 복장까지 다양한 규제를 했다(Anderson 1995: 97-101).

위에서 본 것처럼 대학의 사회적 변모와 이에 따른 학생 수의 증가 및 출신 계급의 변화, 경제적 번영 속에서 강하게 등장한 낙관주의와 행동주의, 하지만 불합리하다고 느낀 대학의 현실에 대한 불만 등이 1960년대 초반의 미국 학생 운동의 조건을 이룬다.

하지만 이런 이상주의와 현실에 대한 불만이 긍정적인 분출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했다. 그 계기는 미국 사회의 해묵은 병폐라 할 수 있는 인종 차별을 없애려는 흑인들의 민권 투쟁으로 찾아왔다.⁵⁾

3. 연좌 농성

1960년 2월 노스 캐롤라이나의 그린스보러의 한 간이 식당에 말쑥하게 차려 입은 네 명의 대학생이 들어와 커피를 주문했다. 이들의 출현에 식당 종업원은

4) *Daily California*, 15 Sept. 1965. Rorabaugh(1989), p. 18에서 인용.

5) 이 글에서는 민권 운동과 학생 운동 등을 주로 미국 내의 맥락에서만 다룬다. 하지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민권 운동 등의 진전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탈식민화 및 냉전이라는 국제 정치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임지연(2004)를 보라.

잠시 당황했지만, 곧 그들에게 여기는 백인 전용 식당이니 나가달라고 했다. 하지만 네 명의 대학생은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식당 문이 닫을 때까지 앉아 있던 이들은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조용히 식당에 들어와 커피를 주문했다. 비록 이들은 끝끝내 커피를 마실 수 없었지만, 이 식당 연좌 농성(sit-in)은 60년대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⁶⁾

식당 연좌 농성은 우선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민권 운동에 새로운 청년 에너지를 제공하였고, 이는 민권 운동이 좀더 전투적으로 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그린스보러 농성은 젊은 학생들의 투쟁이었기 때문에 다른 대학, 다른 지역으로 쉽게 확산되었고, 더 나아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연좌 농성은 4월 중순까지 남부 전역으로 번져 나갔으며 참가한 연인원은 5만 명이 넘었다. 또한 남부 흑인 학생들의 용기 있는 비폭력 직접 행동은 북부의 백인과 학생들에게도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Carson 1981: 10-11).

그린스보러에서 시작되어 수개월 만에 남부 전역으로 번져 나간 흑인 학생들의 연좌 농성 투쟁은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던 남부의 인종 갈등을 표면화시켰고, 60년대 내내 지속될 흑인들의 자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평범한 피억압 인민이 투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직접 행동이라는 투쟁 형태였다. 그렇기에 제리 와츠라는 활동가는 “이전에는 오직 침묵만이 있었던 곳에서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자신의] 공간과 정체성을 요구하는 행동은, 남부 흑인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 60년대에 일어났던 그 어떤 것보다 급진적이었다”고 말하게 된다(Sayer 1984: 263).

60년대 급진주의 운동의 상징이자 중심이 되어 다른 운동들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SNCC)가 탄생한 것이 이 때였다. 1960년 부활

6) 1950년대 후반 민권 운동의 두 가지 요구는 공공 시설에서의 인종 차별 철폐와 투표권이었다. 남북전쟁 이후 연방 헌법 수정 조항 제13, 14, 15조를 통해 노예제가 폐지되고, 흑인에게도 시민권과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하지만 재건 시기가 끝난 후 남부의 여러 주들은 주 헌법과 여러 법률을 통해 투표권 자격 심사, 인종 분리 등을 통해 짐 크로우(Jim Crow) 체제라고 불리는 인종주의 체제를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흑인은 2등 시민의 위치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는 196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절 주말에 30개 주에서 온 학생 175명이 노스 캐롤라이나의 샬리에 있는 쇼(Shaw) 대학에서 열린 비폭력 저항에 관한 학생 지도부 회의에 참가하였다. 비폭력 직접 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의 투쟁을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남부기독교지도자협의회(SCLC)가 후원한 이 모임을 통해 새로운 민권 운동 조직인 SNCC가 탄생하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SCLC의 엘라 베이커였다. 학생들의 자율성을 이해한 그녀는 학생들이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도록 고무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직의 원칙도 마련하였다. 새로운 학생 민권 조직과 관련하여 그녀가 강조한 것은 “운동을 민주적으로 유지하고, 인격적 지도부를 둘러싼 투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평등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하며, 조작이나 지배의 분위기를 풍기는 어떠한 것도 관용하지 말아야” 했다(Levy 1992: 71).

이렇게 독자적인 학생 조직으로 출범한 SNCC는 그 해 여름 의장을 선출하고 10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비폭력은 유대-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것이기에, 사랑이 충만한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추구한다...비폭력을 통해 용기가 두려움을 대신한다. 사랑이 증오를 초월한다...만인을 위한 정의가 불의를 타파한다. 구원의 공동체가 부도덕한 사회 체제를 극복한다(Albert and Albert 1984: 113).

소박한 언어로 표현되긴 했지만 이것은 수세대에 걸쳐 정의와 평등을 위해 투쟁한 남부 흑인 기독교의 전통과 닿아 있었으며, 인종 차별을 넘어서는 평등, 정의, 자유에 기반한 사회를 요구하는 아주 급진적인 목표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볼 때 현대의 급진주의 운동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담론적, 이데올로기적 급진성보다는 직접 행동을 통한 주류 담론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내재적 비판을 통해 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었다. 직접 행동이라는 투쟁 형태는 거기에 참가한 개인들의 인격적 변화를 추동했고, 그러한 인격적 변화는 공동체의 동원과 재형성이라는 과정과 결과를 낳았다. 이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라는 수단과 목표가 형

성되었고, SNCC의 비위계적이고 평등적인 구조와 결합하여 “참여 민주주의”, 수단과 목표의 일치라는 60년대 운동의 정신이 형성되었다.

물론 참여 민주주의는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 혹은 난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다양한 운동 내부의 의견을 조율하여 집행력 있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과 자원이 소비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나 반대 집단의 공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67년 이후 FBI는 운동에 대한 공작을 코인텔프로(COINTELPRO)라는 이름으로 진행하였다. 이외에 더욱 중요한 것으로 참여 민주주의의 직접 참여라는 긍정성은 이후 정체성(identity)이라는 문제 틀과 결합하여 운동이 분열, 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⁷⁾

1961년 봄에 SNCC는 인종평등회의(CORE)와 협력하여 자유의 승객 운동(Freedom Riders)을 벌였다. 이는 버스 터미널을 인종 차별적으로 분리하는 짐 크로우 체제에 저항하기 위해 남부로 가는 버스를 타는 투쟁이었다. 이런 투쟁에 대해 남부의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폭력으로 대응했지만, 지역 경찰이나 FBI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도리어 어떤 곳에서는 지역 경찰이 폭도의 편을 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백인들의 야만적인 폭력은 TV 등 언론을 통해 미국 전역과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민권 운동에 대한 동정적인 여론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참가자들까지 끌어들이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민권 운동가들은 “순식간에 국제적인 관심을 끌며, 연방 정부의 개입을 강제할 자신들의 집단적인 능력을 깨닫게 되었다”(Carson 1981: 20-21).

이런 관심과 도움보다 더 큰 것은 역시 참여자들의 자각과 거듭남이었다. 그 운동에 참여했던 매크리 해리스라는 흑인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과 연대감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멋진 일이었습니다.”⁸⁾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7) 최초의 분열은 민권 운동과 학생 운동 내의 남성 활동가들이 보여준 성차별주의에 반발한 여성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나온 대표적인 글로는 성차별을 카스트 제도에 비유한 Casey Hayden and Mary King, “A Kind of Memo...to a Number of Other Women in the Peace and Freedom Movement” (reprinted in Mary King, *Freedom Song*, New York: William Morrow, 1987)이며, 이를 인격적인 정치(personal politics)라는 관점으로 확장하여 여성 운동의 출현을 분석한 것으로는 Sara Evans(1980)가 있다.

럼 운동 내부에 차이와 분열의 씨앗이 있긴 했지만 말이다.

그 다음으로 SNCC는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이면서도 공동체 조직화 및 투표권 등록 운동으로 초점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 변경의 배경에는 케네디 행정부의 압력과 권유가 있었다. 케네디의 동생이자 법무장관이던 로버트 케네디는 학생들에게 직접 행동이라는 대립적 전술을 포기하고 투표권 등록 운동을 하라고 권유했던 것이다. 게다가 직접 행동 전술을 포기한다면 투표권 등록 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추가 제안도 있었다. 그가 보기에 투표권 운동이 흑백 간의 갈등을 좀 완화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흑인이 투표권을 얻는다면 민주당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Carson 1981: 39).

이런 정황 속에서 1961년 8월 이후 SNCC는 미시시피에서 투표권 등록 운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백인 우월주의자들 및 지방 권력 기관의 폭력적 탄압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투표권 등록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도 폭행의 위험, 경제적 보복, 심지어 죽음까지 무릅써야 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의식을 급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연방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 때문에 활동가들은 연방 정부와 인종 차별적인 남부가 한패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법적, 물리적 도움 없이 투표권 등록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1964년의 ‘미시시피 자유 여름’을 낳게 하였다.

4. 포트 휴런 선언

1962년 6월 미시건의 포트 휴런에 대학생들 비롯한 59명의 활동가들이 새로운 정치적 전망을 담은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뉴욕, 미시건,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텍사스 등지에서 온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젊은 대학생

8) 프레이저(2002), 72쪽에서 인용.

이었는데, 이 중 다수는 남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민권 운동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일부의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사회당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이 작성하고자 한 문서는 산업민주주의동맹의 학생 조직인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a Democratic Society)의 제대로 된 창립 선언이었다. 사흘 간의 논쟁 끝에 미시건 학생들인 알 헤이버와 톰 헤이든이 기초한 선언문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승인되었다. 이것이 바로 1960년대 미국 신좌파의 주요한 원칙과 정신을 담은 「포트 휴런 선언」이다.⁹⁾

“우리는 최소한 온당하게 양육되어 지금은 대학에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로, 우리가 물려 받은 세계를 편지 않은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시작함으로써 이 선언은 60년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세대적인 특유한 경험과 위치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세대적인 특성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적인 이상과 인간간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에 잘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을 끝없이 고귀한 존재로 간주하며, 이성, 자유, 사랑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 사회를 비민주적이고 군사적인 사회로 규정하는 이 선언은 관료제의 부상, 기계화, 물질 숭배가 소외된 미국적 생활 방식을 만들어냈다고 말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이들은 사랑과 공동체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회 속에서 모든 사회 성원은 자신들의 사적인 삶을 규정하는 정치적 결정을 하는 데 동등하게 참여하게 될 것이다. SNCC의 철학 및 운동 목표와 공감하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은 “참여 민주주의”라는 구호로 정식화된다. 이런 점을 이 선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심적인 목표에 의해 운용되는 개인적 참여의 민주주의 제도를 추구한다. 개인의 삶의 질과 방향을 규정하는 사회적 결정에 참여할 개인적 몫이 있어야 하며, 사회는 인간의 독립성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이들의 공동의 참여를 위한 미디어를 제공해야 한다.

9) “Port Huron Statement” in Miller(1987), pp. 329-374.

이렇게 포트 휴런 선언은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인격적 가치에 대한 열망을 결합하고 있다. 이런 점은 공산당, 사회당, 사회민주당, 기타 트로츠키파 등의 구좌파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SDS로 대표되는 신좌파는 이들 구좌파와 마찬가지로 사회 정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달랐던 것이다. 또한 이 선언이 가지고 있는 전망의 새로움, 감정의 솔직함, 도덕적 열정 등은 전통적인 좌파보다는 미국적 자유주의의 가장 숭고한 이상에 더 가까운 것이다.

이런 차이는 혁명의 주체 혹은 사회 변화의 행위자를 바라보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전통적인 구좌파는 산업 노동자 계급을 사회 변화의 중심적인 행위자로 본 반면, 이들은 산업 노동자 계급보다는 다양한 피억압 인민을 변화의 중추로 보았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경제적 풍요 속에서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은 기성 체제의 일부가 된 반면, 그러한 풍요에 그늘에서 다양하게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학생도 포함되었다.

분명한 변명, 도덕적 자기 위안, 정치적 조작의 시대에 신좌파는 사회 개혁의 원동력을 배고픔의 문제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불편한 인격적 노력과 관련된 변화에 대한 주장, 대안에 대한 주장이 이전과는 달리 꼭 논의되어야 한다. 대학은 그러한 활동을 위한 적절한 장소이다.

하지만 대학생만으로 사회 변화를 이룰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행동주의를 지역의 (흑인, 백인 등의) 빈민을 의식화하고 조직하는 데 투여했다. SDS는 1964년 여름까지 미국 전역의 열 개 도시에서 경제조사행동프로젝트(ERAP)를 실시했다(Sale 1974: 114). 이 활동은 SNCC의 지역 운동을 모방한 것으로 지역 사회를 통제하는 풀뿌리 조직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이 운동의 활동가들은 모임을 만들고, 빈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금을 모금하고, 실업자들과 함께 활동하며, 보육이나 법률 상담 등을 했다.

하지만 이 운동은 두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하나는 대학생들이 지속적

으로 지역 공동체에 거주하면서 활동을 벌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속되는 경제적 번영 속에서 신좌파 활동가들이 예상한 것과 달리 실업률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운동에 결합하는 빈민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리어 1960년대 학생 운동의 중심축은 그러한 경제 번영을 뒷받침했던 베트남 전쟁의 확전이었다.

1965년 2월 존슨 행정부가 북베트남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위해 지상군을 파견할 움직임을 분명히 하면서 베트남 전쟁이 캠퍼스의 주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포트 휴런 선언」의 기초자인 톰 헤이든과 같이 여전히 가난한 흑인과 함께 활동을 벌이는 SDS 회원도 있었지만 SDS의 다수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 시위를 조직하는 것으로 운동의 초점을 옮겨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1965년 4월 17일의 워싱턴 시위에서 드러났다. 이 날 SDS가 조직한 반전 시위에 25,000명이 참가했고, 이 가운데 다수는 청년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많은 미국인이 진행 중인 대외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날 시위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SDS를 비롯한 당시 학생 운동이 민권 운동에 대한 공감했고, 그 영향 속에서 발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 이들이 보기에 베트남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민권 운동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베트남 전쟁은 미국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였던 것이다.¹⁰⁾

이렇게 대규모 반전 시위가 조직되자 SDS는 갑자기 언론의 초점이 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소규모 팜플렛을 통해서만 유통되던 이들의 주장이 신문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SDS는 급속하게 성장하여 1966년 말이면 265개의 지부를 가지게 되었고, 1960년대 급진주의 운동 내에서 가장 크고 광범위한 회원을 가진 대중 조직이 될 것이었다(Sale 1974: 307).

10) 이런 점에서 신좌파 운동이 “미국의 가난한 흑인들이나 제3세계의 가난한 피압박민족과 관련된 ‘후진국형’ 급진주의 운동과 손을 잡게” 되면서 구좌파로 후퇴하게 되었다는 이 주영의 주장은 평면적인 유행화에 따른 무리한 것이라 볼 수 있다(이주영 1999: 252).

5. 미시시피에서 버클리로

SDS가 “참여 민주주의”와 인격적인 변화를 주요한 가치로 내건 것은 사실이
지만, 경제조사행동프로젝트(ERAP)에서 볼 수 있듯이 전위적이고 엘리트적인
성격을 완전히 탈각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도 아직은 학
생들 자신의 문제를 전면에 내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쟁 당사국인 미국
의 반전 운동이 학생 당사자들의 운동이 되는 것은 이들이 징집 거부에 나서는
1966년 이후의 일이었다.

1960년대 미국의 학생 운동이 자신의 권리에 기초한 급진적인 운동이 되는
계기는 1964년 가을 버클리에서 왔다. 이 때 학생들은 학내의 정치 활동을 금지
하는 학교 당국에 맞서 “자유 언론”을 내걸고 수 개월 동안 시위와 농성을 벌임
으로써 정치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의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그런데 버클리 학생들이 투쟁에 나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자유 언론”이었
지만 장기적인 배경에는 흑인 민권 운동이 있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직접 행
동에 의한 인종 차별 철폐 운동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1964년 여름에 미시시피
에서 대규모의 투표권 등록 운동을 펼친다. 여기에는 남부의 흑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북부의 백인 학생들도 상당수 참여하였고, 이는 SNCC의 철학과 운동
방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천 명 이상의 백인 학생들을 모집하여 미시시피 전역에서 투표권 등록 운동을
비롯한 공동체 조직 활동을 모색한 ‘미시시피 자유 여름’은 그 자체로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없다. 우선 운동의 주요한 목표인 투표권 등록의 성과가
미미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폭력에 더해 오랜 세월 차별받아 온 흑인들의
심리적 억압 상태가 하루아침에 깨질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인지 이 운동
기간에 해당자 가운데 투표권 등록을 한 흑인은 10%가 채 되지 않았다(Carson
1981: 117).

하지만 이 운동의 참여한 자원 활동가들이 받은 영향은 매우 큰 것이었다. 주
로 명문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중산층 이상의 출신인 이들은 대체로 보아 앞서

말한 60년대 세대의 이상주의와 낙관주의를 공유하고 있었다. 한 자원자는 여름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항상 인종 차별이 나쁘다고 알고 있었으며, 지금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차별과 불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테리와 공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일 없이 앉아 있을 수는 없다(McAdam 1988: 45).

이런 이상주의와 낙관주의를 가진 학생들은 남부에 와서 SNCC 활동가들의 용기 있고 헌신적인 활동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더 커다란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모습을 한 백인 활동가는 다음과 기록하고 있다.

대학의 젊은이들은 실존주의자들[의 저작]을 읽고 있었다. [그들에게] 흑인 학생들은 영웅과 같았다. 그들은 실존주의적 영웅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 아름답고 즉흥적인 일이었으며, 이것이 백인 지식인들을 끌어당겼던 것이다(Hampton and Fayer 1990: 185-186).

하지만 열정과 감동만으로 현실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여름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인 투표권 등록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여름 프로젝트의 또 다른 부분이었던 ‘자유 학교’는 몇 가지 점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자유 학교’는 여름 프로젝트가 벌어지는 방학 동안 주로 10학년과 11년 흑인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앞서도 잠깐 언급한 흑인들의 심리적인 억압을 떨치기 위해 흑인의 역사와 문화, 철학, 시사 등도 커리큘럼에 포함되었다. 또한 자유 학교는 교육 방식에서도 혁신적인 대안을 추구하였다. 자유 학교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의 분리, 일방적인 교습이라는 전통적인 교실의 규칙을 폐기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였다(Holt 1992: 113-115).

이런 활동 내용을 가진 자유 학교는 큰 호응을 받아 미시시피 전역에 걸쳐

41개 학교에서 2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하여 공부하였다. 그래서 민권 운동이 미미했던 지역에서도 자유 학교는 두려움의 단단한 매듭을 풀고 흑인 공동체를 조직하는 데 기여하였다(Carson 1981: 120).

그런데 자유 학교의 경험을 통해 흑인 학생들만 바뀐 게 아니었다. 여기에 교사로 참여한 자원 활동가들 또한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흑인 학생들 속에서 “변화를 볼 수 있었고” “확신이 커질” 수 있었다(Sutherland 2002: 111). 다시 말해 이들은 버클리 대학의 마리오 새비오가 말했듯이 “가르치는 동시에 배웠던” 것이다.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캠퍼스로 돌아온 학생 활동가는 새롭게 급진화되었다. 여전히 이상주의와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부의 끔찍한 가난과 인종 차별을 직접 목격했고, 그 속에서 피억압 인민인 흑인들의 변화 가능성을 찾아냈으며, 연방 정부를 비롯한 기성 질서가 억압적 질서의 일부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대학 당국의 억압에 직면했을 때 전과 달리 반응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1964년 9월 내내 버클리 캠퍼스는 대학 당국과 학생들의 작은 충돌로 시끄러웠다. 학생들은 개강과 함께 학내에서 민권 운동 관련 모금과 선전 활동을 폈고, 대학 당국은 학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새로운 학칙으로 맞섰다. 10월 1일 대학 경찰이 민권 활동을 벌이던 잭 와인버그를 체포하는 것에 맞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경찰차를 둘러싸고 자발적인 연좌 농성을 벌임으로써 작은 충돌은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Draper 1965: 39-41).

32시간의 연좌 농성 끝에 잭 와인버그는 석방되었다. 하지만 이 사태를 계기로 학내 활동가들은 정치 활동 금지 학칙을 철폐하고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자유 언론 운동”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의사 결정과 일상 업무의 집행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두었다. 집행위원회는 학내 여러 조직의 대표자들로 이루어졌으며, 일상적인 결정을 위해 그 내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들 조직은 다양한 의견의 경연장으로서, 자유 언론이 추구했던 대중 참여의 민주주의를 보여준다.

이런 대중 참여 민주주의는 활동의 원칙이었을 뿐만 활동의 내용으로 발전했다. 3개월 이상 지속된 이 운동에 많은 학생들이 지지를 보냈는데, 그 이유는 사태의 시발점이었던 민권 운동이라는 쟁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과 대학의 역할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으로 전환한 자유 언론 운동에 대해 주요 활동가가 가운데 하나였던 마리오 새비오는 이렇게 평가한다.

타인에게 행해지는 불의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 행해지는 불의에 대해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전자의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정치적 의식만 있으면 된다...사람들은 타인을 해방시키고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사회가 자신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를 천천히, 고통스럽게 깨닫게 된다...버클리 학생들이 오랫동안 흑인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데 바쳤던, 소진되지 않은 에너지가 이제 익명의 거대한 대학 당국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것이 자유 언론 운동에 최초의 자극을 준 것이었다(Savio 1965: 15).

당시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대학이 지식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그 속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누구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학은 더 이상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훈련소였고, 이렇게 표준화되고 조직화된 통제를 행하는 현대의 공장처럼 변해 버린 대학은 학생들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적인 존재로 대한다는 것이다(Draper 1965: 187).

대학과 학생들의 삶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자유 언론 운동을 낳았고, 학생 대중의 지지를 모을 수 있었으며,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이런 분위기와 태도를 마리오 새비오는 스프라울 홀 연좌 농성 집회에서 이렇게 말한다.

기계의 작동이 불쾌감을 주며, 심장병을 일으키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암묵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신체로 기어, 휠, 레버, 모든 장치를 막아야 하며, 그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누가 움직이고 있으며,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하며, 당신들이 자유롭다면 그 기계는 결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Draper 1965: 19).

이 연설을 통해 새비오는 전후 미국 자본주의의 변형을 떠받치고 있는 사회 및 비인격화된 관료제를 기계에 비유하면서 인간적 가치를 말살하고 있는 기계와 협력하거나 그 톱니바퀴가 되기를 거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자유가 획득될 때까지 부자유스러운 사회에 저항할 개인의 권리에 따른 행동을 통해 새로운 정치 운동이 창출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

스프라울 홀 점거 농성은 더 나아가 “자유 대학”을 만들어냈다. 다시 말해 관료제를 마비시키는 공간의 점거는 자신들의 해방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은 SNCC에서 이어받은 것이었고, 더 나아가 1960년대 내내 전세계의 학생 운동에서 모방될 것이었다.

스프라울 홀 농성은 대학 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찰의 진압에 의해 해산당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즉각 동맹 파업에 들어갔고, 여기에 TA와 일부 교수들도 동조하였다. 결국 대학 당국은 학내 정치 활동의 자유 등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했고, 이로써 60년대 최초의 학내 분규는 학생들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5. 맺음말

1960년대의 새로운 학생 운동 혹은 급진주의 정치의 출현은 분명 새로운 세대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 미국과 서구 의회 민주주의 나라들이 유사하긴 하지만 특히 미국의 경우 경제적 풍요와 냉전이라는 1950년대의 특유한 경험이 이들 세대의 형성을 위한 역사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 이들 세대는 낙관적인 정서와 이상주의를 키워갔으며, 핵 절멸의 공포라는 부조리 속에서 행동주의를 내세울 수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은 구좌파와 달리 이론

적 준거점에서도 훨씬 자유로울 수 있었고, 이런 점은 실용적 절충주의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1950년대는 1960년대를 위한 온상이었고, 만하임의 개념을 쓰자면 1960년대 세대의 세대 위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세대는 특유한 사회적 사건의 경험을 통해 ‘우리라는 정서’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형성된다고 할 때 미국의 1960년대 세대에게 그런 경험을 제공한 것은 민권 운동이었다. 1955년의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으로 시작된 흑인들 자신의 민권 운동은 최소한 미국적 가치에도 미달하는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60년대 세대를 분노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과 공동체 경험은 1960년대 운동 특유의 정서와 운동 철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점에서 민권 운동은 1960년대 세대의 세대 연관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권 운동의 쟁점만이 1960년대 운동 세대의 세대 연관을 형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후 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더욱 중요했던 것은 운동의 스타일과 방법론이었다. 개인의 가치에 대한 강조와 참여 민주주의는 지향점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방법론이었으며, 직접 행동 또한 이전의 운동과는 많이 다른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과 방법론이 있었기에 1960년대의 거대한 운동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 이후 다기한 운동들로 분열하고 정립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SNCC와 SDS는 구조파와 달리 자유와 평등이라는 미국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운동의 원칙과 철학으로 수단과 목적의 통일, 개인의 가치와 집단적 가치의 결합, 참여 민주주의, 사랑의 공동체 등을 제시함으로써 무감각한 현대 관료제 사회 및 위기에 빠진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급진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버클리 대학의 자유 언론 운동은 현대 사회에서 학생 자체가 억압받는 존재이며,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수 있고, 투쟁해야 한다는 점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때 1960년의 연좌 농성과 SNCC의 형성, 『포트 휴런 선언』을 통한 SDS의 재정립, 버클리 자유 언론 운동은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1960년대 세대를 형성한 출발점이 되는 경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운동에 커다란 영감과 준거가 되는 모델을 제공한 것이었다.

참고 문헌

- 박재홍(2001), 「세대 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제24권 제2호, 2001, 47-78.
- 스미스, 데이비드(1987), 「미국의 대학과 노동 계급」, 김종철, 강순원 (번역), 『미국의 대학과 노동 계급』, 창작과비평사, 서울.
- 윌러스틴, 이매뉴얼(1996), 『반체제운동』, 창작과비평사, 서울.
- 이주영(1999), 「1960년대 미국 학생운동의 마르크스주의화 과정: 신좌파의 구좌파로의 후퇴 과정」, 『미국사연구』 제9집, 251-273.
- 이주영(1998), 「미국 신좌파: 역사적 의미와 유산」, 미국학연구소 편, 『미국 사회의 지적 흐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서울대출판부, 서울.
- 임지연(2004), 「미국의 민권 운동에 미친 냉전의 영향, 1945-1960」, 『미국사연구』 제19집, 51-77.
- 정경희(2001), 「초기 신좌파의 성격」, 『미국사연구』 제13집, 169-192.
- 플레이저, 플레이저(2002), 『1968년의 목소리』, 박종철출판사, 서울.
- 홉스봄, 에릭(1999), 『극단의 시대 - 20세기의 역사』, 까치, 서울.
- 카치아피카스 조지(1999), 『신좌파의 상상력』, 이후, 서울.
- 황보종우(1997), 「SDS의 초기 노선과 활동에 대하여: 포트 휴런 선언과 공동체 조직 운동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제6집, 211-233.
- Albert, J. C. and Stewart Edward Albert(1984), ed., *The Sixties Papers*, New York: Praeger.
- Anderson, T.(1995), *The Movement and the Six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ptheker, B.(1972), *The Academic Rebellion in the United States*, Secaucus, New Jersey: The Citadel Press.
- Carson, C.(1981), *In Struggle: SNCC and the Black Awakening of 1960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Draper, H.(1965), *Berkeley: The New Student Revolt*, New York: Grove Press.
- Evans, S.(1980), *Personal Politics: The Roots of Women's Liberation in the Civil Rights*

- Movement and the New Left*, New York: Vintage Books.
- Feuer, L. S.(1969)., *The Conflict of Generations: The Character and Significance of Student Movements*, New York: Basic Books.
- Fink, C., P. Gassert and D. Junker(1998), 1968: *The World Transform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tlin, T.(1987), *The Sixties: Years of Hope, Days of Rage*, New York: Bantam.
- Hampton, H. and Steve Fayer(1990), *Voices of Freedom: An Oral History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from the 1950s through the 1980s*, New York: Bantam Books.
- Holt, L.(1992 [1965]), *The Summer That Didn't End: The Story of Mississippi Civil Rights Project of 1964*, New York: Da Capo Press.
- Kerr, C.(1963), *The Uses of the Univers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Levy, P. B.(1992), ed., *Let Freedom Ring: A Documentary History of the Modern Civil Rights Movement*, New York: Praeger.
- Lipset, S.(1971), *Rebellion in the Univers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Adam, D.(1988), *Freedom Summ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nnheim, K.(1952),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iller, J.(1987), *Democracy Is in the Streets: From Port Huron to the Siege of Chicago*,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Rorabaugh, W. J.(1989), *Berkeley at War: The 1960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ale, K.(1974), *SDS*, New York: Vintage Books.
- Savio, M. et als.(1965), *The Free Speech Movement and the Negro Revolution*, Detroit: News and Letters.
- Sayer, S. et al(1984)., *The 60s Without Apolog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utherland, E.(2002), *Letters from Mississippi: Personal Reports from Civil Rights Volunteers of the 1964 Freedom Summer*, Brookline, MA.: Zephyr Press.

원고 접수일: 2007년 9월 30일

게재 결정일: 2007년 11월 12일

ABSTRACT

The Making of the New Generation and the Student Movement of the US in the 1960s

Ahn, Hyosang

The new student movement or the arrival of the radical politics in the 1960s had relation to the making of the new generation. In the US, this generation came of age upon the affluence and the Cold War in the 1950s. In this historical context, they had the idealism and the activism, and unlike the Old Left, they acted upon the practical eclecticism. So the 1950s was the seed bed of the 1960s and the generation location in the Mannheim's term.

The 1960s generation was made under the impact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They raged at the American reality against which the blacks had fought, and accepted the direct action and the beloved community that the blacks had done. In this sense, the civil rights movement made the generation relation.

Further, the civil rights movement gave the new generation the new style and the method of the movement. The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importance of the individual value were the method as well as the goal. The formation and the division of the Movement owed to them

In the course, the SNCC and the SDS sought the radical alternatives to

the bureaucracy and the representative system through the union of the individual and the community, the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beloved community. And they recognized that the students in the modern society were the oppressed, and so they could struggled for their own rights through the Berkeley Free Speech Movement.

In the end, the sit-ins of the black students and the making of the SNCC, the reformation of the SDS, and the Berkeley Free Speech Movement were the starting points of the 1960s generation and gave the later movements the references and the aspirations.